



## 주의 만찬

2021년 11월 14일 설교

누가복음 22:7~20

크리스 식스 목사

### 설교 소개

미국에서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을 지킵니다.

하느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축제이자 축하입니다.

식사 중에 가족과 친구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에 음식과 가족에 관한 3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최후의 만찬은 또한 첫 번째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후에 주의 만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성경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십시오.

### 누가복음 22:7-20

7 그 때에 유월절 어린양을 바쳐야 할 무교절의 날이 이르렀다.

8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먹게 하라 하시니

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준비하게 하겠느냐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읍에 들어갈 때에 물동이를 멘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라

11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이르시되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12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가구가 비치 된 큰 다락방을 보여 줄 것입니다. 거기서 준비해.”

13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고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으사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7 또 잔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서 서로 나누어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20 그들이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함께 이사야서 40 장 8 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당신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굶주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 즉 큰 생각입니다.

**큰 아이디어:** 주의 만찬은 감사로 뒤돌아보고 희망으로 기대합니다.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7절과 8절에 언급된 것을 봅니다.

7 “그 때에 유월절 어린양으로 제사를 드릴 무교절이 되었더라.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먹게 하라  
하시니

유월절은 유대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축제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쳤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 장을 읽을 때 예배 초반에 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심판으로 이집트에서 처음 난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을 노예로 만든 바로에게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맏아들 중 일부는 그날 밤 살아남았습니다.

천사는 집 몇 군데를 지나쳤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어떤 집을 넘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어린 양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출애굽기 12:12-13 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2 그 밤에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과 처음 난 수컷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13 그러나 네 문설주에 묻은 피는 네가 머무를 집을 표시하는 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나는 당신을 넘어갈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이 죽음의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는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어린양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8 절을 보십시오.

7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짐승을 먹는 집의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8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누룩 없이 만든 빵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지나갈 때 밤에 어린양을 먹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미래에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기념하고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12:14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 ”오늘은 기억할 날이로되 해마다 대대로 이것을 여호와와 특별한 절기로 지킬지니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한 방에 모여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하했습니다.

왜 우리는 음식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축하 행사를 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118

특별한 음식을 맛보고 엄마를 기억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냄새를 맡고 과거의 특별한 장소나 사건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과 귀와 코와 손과 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표징과 상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어린양을 떡과 포도주와 함께 먹을 때 냄새를 맡고 맛보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명절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친교로 돌립시다.

우리는 또한 이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식사를 주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누가복음 22:19-20 을 보십시오.

19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20 그들이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유월절 식사에는 양고기, 빵, 포도주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 장에는 어린 양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입니다.

19 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까?  
유월절에 포도주 잔을 쏟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실 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죄에 대해 결코 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 번 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생과 소망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신 주의 만찬을 지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만찬과 세례는 기독교 교회의 두 가지 성사입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영적 약속의 물리적 그림입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1600 년 전 어거스틴은 성례전이 ” 내적이고 지속적인 은총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의 물은 우리 죄의 영적인 씻음의 가시적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시적 표징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이나 빵과 잔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둡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배를 빵으로 채우려고 식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로 이 식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과거에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의 천사가 당신을 지나쳤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마음이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거기에서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상기시키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번 주에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찬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 주의 만찬 ”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만찬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자신이 식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그분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주의 만찬을 설명하기 위해 때때로 ” 교제 ”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찬은 공동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상반된 정치적 견해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성찬은 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수평적 영향을 미치는 수직적 관계를 기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이유이자 기초입니다.

식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양육을 받고 격려를 받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Big Idea** 를 기억하십니까?

큰 아이디어: 주의 만찬은 감사로 뒤돌아보고 희망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축제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의 백성을 구출했을 때를 어떻게 회상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양을 떡과 포도주와 함께 먹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는지 논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오늘날 친교의 성사는 우리를 구세주 예수와 더 깊이 연결하고 교회 가족으로서 서로를 연결합니다.

주의 만찬도 희망을 품고 앞을 내다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미래의 만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8”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묻힌 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모든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큰 파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결혼식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젠가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 계시록 19:6-9

6 “그 때에 내가 다시 들으니 많은 무리의 함성이나 큰 파도의 함성이나 큰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나서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7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때가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예비하였느니라.

8 그녀는 순백의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마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선행을 나타냅니다.

9 천사가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덧붙였다.

아멘.

친구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결혼식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대권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그의 피로 당신의 죄를 씻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왕의 식탁에 앉으실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국가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8”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자리를 잡고”

그 연회는 미래의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면 당신을 위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소 카드에 당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리 앞 탁자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고 저녁 만찬에 당신을 기다리는 자리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오늘 떡과 잔을 가지지 마시오.  
아직.  
이 모든 것에 대해 좀 더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의 완전한 구성원임을 알고 하루 빨리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걷고 있다면, 이 식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테이블은 이 교회나 이 교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 이 테이블에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종종 여기 이 부서진 세상에서 힘듭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통받고 투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참석하게 될 혼인 잔치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음식과 음료가 풍부하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의 가장 좋은 부분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었을 때 떡과 포도주와 구운 어린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의 지도자요, 가장 친한 친구요,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식탁 위의 작은 빵 조각과 작은 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화로운 잔치입니다, 친구들!

빵과 잔은 우리가 이 식탁에서 받는 실제 음식의 사진일 뿐이기 때문에 잔치입니다.  
우리 마음이 굶주린 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식탁에 앉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제자들이 2000 년 전에 당신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례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림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식탁에 올 때 우리는 굶주린 마음으로 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와서 평화와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해주십시오.  
아멘.